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요 약

I.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소개 / 1

- | | |
|---|--------------------------|
| 1 | 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개요 |
| 6 | 2. 한-터키 서비스 무역 추이 |
| 7 | 3. 한-터키 투자 추이 |

II. 한-터키 간 향후 서비스·투자 유망분야 / 11

- | | |
|----|----------------------------|
| 11 | 1. 엔지니어링(인프라) |
| 15 | 2. 엔지니어링(에너지) |
| 19 | 3. 한류 문화컨텐츠 배급 |
| 22 | 4. 폐수처리 시설 건설 기술지원 및 관리 감독 |

III. 시사점 / 25

[참고] 진출 시 체크포인트/ 27

요 약

□ [조서배경]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를 맞아 터키의 서비스·투자부문 유망분야 제시 및 기 진출 기업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 전략 수립 지원 필요

- 터키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국가로, '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FTA로,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 철폐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활용률이 높음
-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를 통해 한-터키 FTA는 '보다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되어 양국 간 경제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

□ [협정 소개] 동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 (서비스협정)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협정으로, 양국 모두 자국의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
- 서비스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하였고, 터키는 건설,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 약속
- (투자협정)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협정으로,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규범 및 체계적인 ISD도 포함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우리나라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분야에 있어 투자를 유보하기로 합의

요 약

□ [우리 기업의 對터키 진출 유망분야]

○ 이번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로 터키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기업 진출 확대 기대

품목	유망 사유 및 진출 전략
엔지니어링 (인프라)	• 터키 정부가 추진 중인 Vision 2023 계획에 의거, '23년까지 약 3,250억불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예정 • 우리기업의 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 확대 및 터키 기업과의 협업 기회 증가로 현지 진출 기회 확대 중 •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활용 및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경험 확보
엔지니어링 (에너지)	•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터키 정부의 에너지산업 집중육성으로 '23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100억 불 투자 예정 • 터키 정부의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행경험 풍부 •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수행경험 활용 및 규제 회피를 위한 터키 기업과의 합자 회사 설립 등 협업을 통한 진출 필요
한류 문화콘텐츠 배급업	• 터키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및 구매력 확대로 유료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 높음 • 터키 내 한류 팬 확대로, 향후 한류 콘텐츠 전문 플랫폼 수요 증가 예상 • 최근 터키 내 전자상거래 사이트 제재 동향 감안 시, 세금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간접 진출 방식보다 현지 직접 진출 방식을 추천
폐수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감독	•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높은 기술력 • 터키 정부는 EU 폐수처리 규정 충족을 위해 '23년까지 해당 산업에 105억 불 투입 예정 (EU기금 25억불) • EU기금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EU 국가 또는 터키 내 사업체 설립이 필수이므로, 기존 사업장 활용 및 현지 회사와의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초기 리스크 절감 가능

□ [시사점]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로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으로, 터키 시장 진출 시 해당 산업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및 협력 확대 필요

- 한-EU FTA와 유사하게 대졸연수생을 인력이동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인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
-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요구됨
- 특히, 초기 진출 시에는 현지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 필요

I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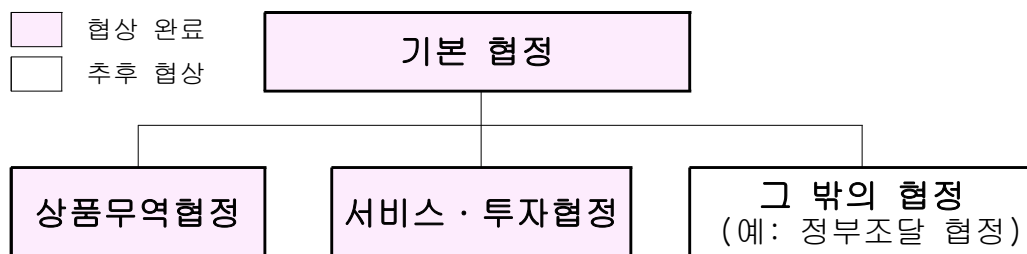
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개요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경과

- '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한-터키 통상장관회담)
- '10.4월부터 '12.3월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 공식협상 : 1차 '10.4월(앙카라), 2차 '10.7월(서울), 3차 '11.3월(앙카라), 4차 '12.3월(서울)
 - * 소규모협상 : 1차 '11.11월(서울), 2차 '12.1월(앙카라), 3차 '12.2월(이스탄불)
- '12.3.26 한-터키 정상회담 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 선언(상기 협정 가서명)
- '13.5.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발효
- '14.6.30~7.4(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 '14.9.18(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영문본 가서명
- '15.2.26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 서명
- '18.8.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 한-터키 FTA 협정 구조 】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중요성

- (시장잠재력)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 '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13.5월 상품협정 발효 후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FTA 발효 전 3년간 양국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 수준이나, 상품협정 발효 후 1년간('12.5월~'13.4월) 39%로 약 2배 가까이 교역 규모 증대
 - * 양국 간 전체적인 교역은 상품협정 발효 5년간 16.3% 증가('12)61.9억불→('17)72억불)
 -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14.11월, 산업연구원)
- (지정학적 중요성)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 기대
- (의의) 기발효된('13.5.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터키의 유럽 및 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주요 내용

서비스협정

- WTO 서비스협정(GATS)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
- 협정문의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양국 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연안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제외
 - * 모드 1(국경간 서비스무역), 모드 2(해외소비), 모드 3(상업적 주재), 모드 4(자연인의 이동)
 - * 항공 운송 서비스 중 항공기 유지 및 보수, 항공 운송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 자유화 방식
 -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채택
 -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서비스협정 체결 시, 우리 측 요청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하여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
-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 제한 금지)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합리적인 국내규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의무

○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 양국 모두 자국의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교역 확대 기대

* '05년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 시 제시된 양허안으로, 현재 유효한 GATS 양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

- (인력이동) 상업적 주재가 허용된 분야의 “핵심인력(Key Personnel: 관리자, 전문인력, 사업방문자로 구성),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 판매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체류조건을 전제로 자유로운 이동 허용

* 최소 1년간 자국 법인에 고용되어 있고, 학사학위를 보유한 자로 경력 개발이나 연수 목적으로 상대국 내 자회사 등에 파견 근무된 자

- (터키) ▲ 건설 관련 분야(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기타 운수 장비 등), ▲ 문화 분야(영화·비디오 제작 배급, 엔터테인먼트 등), ▲ 환경 분야(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등을 포함한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 약속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 (韓) 한-EU FTA와 유사하게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

투자협정

-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규범 및 체계적인 ISD도 포함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협정문의 적용 범위

- 非서비스 투자(1차 산업 및 제조업)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

* 서비스 분야 투자는 서비스협정에서 규율하는 점에서 한-미 FTA와 차이

* 한-미 FTA는 서비스 투자 및 非서비스투자 모두 투자 챕터에서 규율

○ 자유화 방식

-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의 유보목록을 작성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채택

○ 일반적 의무

- (투자의 대우) 설립 전(pre-establishment)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자유화 의무 규정
- (혜택의 부인) 제3국인이 소유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상대국 기업(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이행요건 부과금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관련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 냉각기간, 제척기간, 준거법, 중재인 임명 등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상세히 규정

○ 기타 제도적 장치

- (간접수용 부속서) 간접수용의 정의, 간접수용의 판정기준, 간접수용의 예외(환경, 보건, 부동산정책 등)를 명확하게 규정
-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한-미 FTA 수준의 송금 조항 부속서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 추구

○ 주요 투자 유보 분야

- 우리나라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 확보

2 | 한-터키 서비스 무역 추이

- (韓) 지난 5년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폭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총 수출의 경우, '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중
 - 서비스 총 수입의 경우, '15년 감소 후 보합세를 보이다 '17년 약 1,219억 불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
 -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는 '15년 전년 대비 약 4배, '17년 전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적자 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 (터키) 지난 5년간 터키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폭은 '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17년 증가세로 전환
 - 서비스 총 수출의 경우 한국의 절반 수준이며, '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17년부터 수출액 증가
 - 서비스 총 수입의 경우 한국의 1/5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약 240억불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임

〈 한국과 터키의 對세계 서비스 무역 추이 〉

(단위: 백만불)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서비스수출	한국	103,739.3	112,105.8	97,730.4	94,903.4	87,496.4
	터키	48,197.4	51,852.2	46,887.7	37,740.6	43,994.4
서비스수입	한국	110,238.2	115,784.3	112,647.4	112,640.9	121,968.7
	터키	24,514.8	25,087.9	22,677.8	22,410.4	24,031.4
서비스수지	한국	-6,498.9	-3,678.5	-14,917.0	-17,737.5	-34,472.3
	터키	23,682.6	26,764.3	24,209.9	15,330.1	19,963.0

자료: OECD

3 한-터키 투자 추이

韓→터키

-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터키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수는 51건, 신고금액은 1억 7천3백만불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세계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은 '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對터키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수는 '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7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신고금액은 '16년 역대 최고 액수인 약 7억 6천만불을 기록하였으나 '17년 약 1/4 수준으로 감소
 -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對터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1.5%였으나, '17년 약 1/4 수준인 0.4%로 감소
-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국가 중 33위

〈 韓→터키 해외직접투자 추이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韓 ↓ 세계	신고건수(건)	9,425	9,611	10,319	11,199	11,470
	신규법인수(개)	3,037	3,049	3,219	3,353	3,411
	신고금액(백만불)	36,332	35,910	40,671	49,618	49,428
韓 ↓ 터키	신고건수(건)	72	61	53	41	51
	신규법인수(개)	20	10	7	9	9
	신고금액(백만불)	181	117	242	757	173
	신고금액비중(%)	0.5	0.3	0.6	1.5	0.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투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5개년 간 투자금액 누계 기준, 정보통신업이 전체 투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활발함
- 정보통신업의 경우, '16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억 8천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져 '16년 對터키 해외직접투자액의 약 90% 차지
 - 반면, '17년 對터키 정보통신업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약 1천만불로 급감하여 전체 對터키 해외직접투자 분야 중 5위를 기록
 - 제조업은 '15년까지 투자액이 계속 증가하다 '16년 전년 대비 1/5 수준인 2천만불로 급감하였으나 '17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건설업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7년 처음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투자액수가 약 6천4백만불로 '17년 전체 對터키 해외직접투자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망분야로 부상

< 韓→터키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단위: 천불)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정보통신업	13,139	48	13,615	682,654	9,974	719,430
건설업	53,038	48,392	111,117	19,725	33,768	266,040
제조업	28,664	36,796	93,321	19,433	38,910	217,124
도매 및 소매업	34,182	23,619	19,946	22,836	17,659	118,2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0	0	64,678	64,678
금융 및 보험업	50,493	0	0	0	0	50,49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20	3,792	2,626	10,246	5,447	22,2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15	3,709	1,413	1,038	786	8,661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72	710	1,922	2,704
운수 및 창고업	116	613	150	738	100	1,71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9	0	0	20	0	39
합 계	181,486	116,969	242,260	757,400	173,268	1,471,3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터키→韓

□ '17년 기준, 터키의 對韓직접투자 신고건수는 8건, 신고금액은 90만불로 '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최근 5개년 중 최저인 약 90만불로 감소

○ 우리나라의 對터키 직접투자에 비하여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이 매우 적고, 신고금액비중 또한 0.004%~0.01% 수준으로 타국 대비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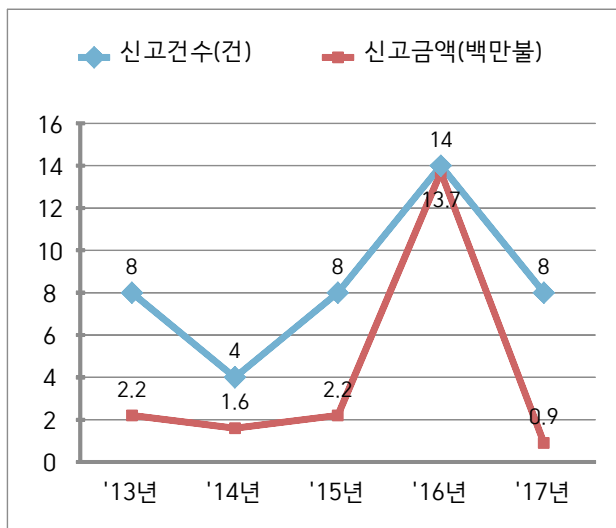
* 對韓직접투자 국가 중 66위

< 터키→韓 직접투자 추이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세계 ↓ 韓	신고건수(건)	2,607	2,462	2,699	2,987	2,774
	신고금액(백만불)	14,545	19,000	20,910	21,296	22,943
터키 ↓ 韓	신고건수(건)	8	4	8	14	8
	신고금액(백만불)	2.2	1.6	2.2	13.7	0.9
	신고금액비중(%)	0.02	0.01	0.01	0.06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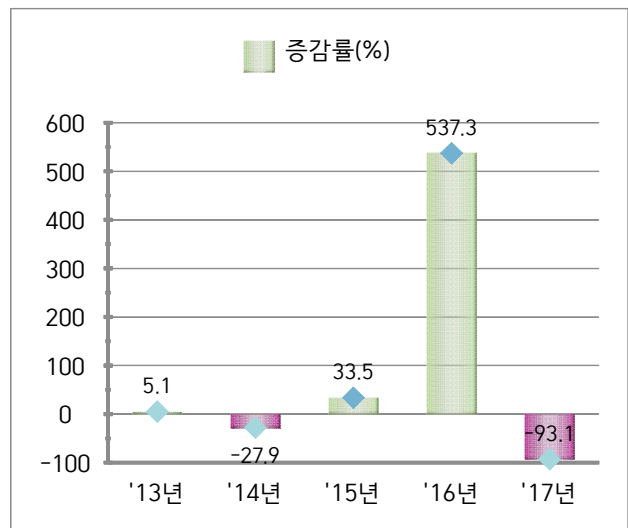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터키→韓 직접투자 현황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터키→韓 직접투자 신고금액 증감률(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투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연도별 투자 금액에 심한 편차 존재

○ 제조업의 경우, '1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17년 투자액 급감

- '16년 터키의 제조업 투자액은 1,260만불로 '13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의약 분야로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의 경우, '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17년 감소세로 전환

- 도·소매(유통), 숙박·음식점 분야로의 투자가 활발하지만 두 분야 모두 '17년 이후 투자액이 하락하고 있어 반등 모멘텀 필요

〈 터키→韓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 〉

(단위: 천불)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제조업	1,166	1,515	1,633	12,600	200
- 식품	0	0	0	100	0
- 의약	0	0	0	12,500	0
- 운송용 기계	1,166	1,515	1,633	0	0
- 기타 제조	0	0	0	0	200
서비스업	1,074	100	523	1,141	741
- 도·소매(유통)	984	0	0	465	246
- 숙박·음식점	90	100	337	473	410
- 사업지원·임대	0	0	93	87	0
-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0	0	92	87	0
- 공공·기타서비스	0	0	0	30	8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II 한-터키 간 향후 서비스 · 투자 유망분야

1 엔지니어링(인프라)

□ 시장 현황

- 터키 정부가 추진 중인 Vision 2023 계획에 의거, '23년까지 약 3,250억불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예정
 - 이스탄불 제3공항(330억불), 보스포루스 3대교(25억불) 등 1,000억불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수행) 완료
 - 향후 5년간 이스탄불 운하(200억불), 이즈미르 베이크로싱(30억불) 등 총 2,250억불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가 발주 예상
- 터키 내 주요 인프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해외기업이 수행 중이며, 기존 추세 감안 시 향후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해외기업 진출 확대 예상

〈 터키 내 주요 교량, 터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현황 〉

연번	프로젝트명	규모(백만불)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1	이스탄불 제3대교	2,500	ICTAS(터키), ASTALDI(이태리)	T Engineering(스웨덴) 등
2	유라시아 해저터널	1,300	SK건설(한국), YAPI(터키)	Parsons Brinckerhoff, HNTB(미국)
3	오스만가지 대교	1,300	Astaldi(이태리) 및 터키 5개사	COWI(덴마크)
4	차나칼레 대교	2,800	SK, 대림건설(한국), Limak, Yapi(터키)	COWI(덴마크)

* 한국 엔지니어링 업체는 한국 건설업체 수주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링 Sub Contractor로 참여

□ 경쟁 현황

- 국내외 저명 엔지니어링 업체 대다수는 업체간 협업을 통해 터키 내 인프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참가 타진 중

〈 터키내 대형 인프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참가(추진)업체 현황 〉

연번	업체명	국적	글로벌 순위
1	AECOM	미국	1
2	ARCADIS	네덜란드	7
3	PARSONS	미국	29
4	HYUNDAI ENGINEERING	한국	41
5	COWI	덴마크	42
6	SYSTRA	프랑스	51
7	SETEC	프랑스	101
8	PYUNGHWA ENGINEERING	한국	기타
9	YOOSHIN ENGINEERING	한국	
10	SAMHWAN ENGINEERING	한국	
11	MOFFAT&NICHOL	미국	

* 순위 출처 : ENR(Engineering News Record) 2017 Top 150 Global Design Firms

□ 관련 국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

- 터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엔지니어링 업체 및 컨설팅 업체와의 네트워킹 조성 필수
 - 터키 대형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Yuksel Proje 등 일부 현지 엔지니어링 업체가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성 검토 결과 입수 가능
 - 터키에서는 관행적으로 일부 컨설팅 업체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 프로젝트 수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젝트 세부정보 입수 가능
- 현지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유사 대형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중

□ 유망 사유

- 국내 건설사의 터키내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따른 협업 기회 확대 예상
 - 입찰 설계 시부터 국내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낙찰 후 실시 설계 입찰 시 경쟁우위 선점 가능

< 터키 내 국내기업 참가희망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연번	프로젝트명	규모 (백만불)	발주시기 (예상)	주요내용
1	이즈미르 베이 크로싱	3,000	'18년 중 발주 추진 중	이즈미르 해협에 총 12.2km 도로 및 침매터널 등 건설
2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	20,000		이스탄불 인근 길이 45-50km 대규모 운하 건설(교량 건설 포함)
3	3층 그랜드 해저터널	3,500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최초 3개층 해저터널 건설

* 출처 : 현지 언론보도 종합

-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터널, 대형 교량 등 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 확대에 따른 현지진출 기회 확대
 - 국내, 동남아, 인도 등지에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터키시장 진출 타진 가능

□ 진출 기업 사례

기업명	COWI SNS ENGINEERING (덴마크)		
제공 서비스	인프라 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11
연매출액(달러)	미공개		
터키 진출 경험 및 애로사항	- 덴마크 국적의 COWI社は 국내외 인프라(교량, 터널 등)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토대로 Osman Gazi 대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최초 수행 - 특히, COWI社は 입찰설계 단계부터 건설 프로젝트 컨소시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실시 설계 수행 기반 마련 - 또한, Osman Gazi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Canakkale Bridge 실시설계 프로젝트 수주 - Canakkale Bridge 실시설계 프로젝트는 초기 한국기업 수주가 유력했으나, COWI社は 가격협상력,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막판 역전에 성공		
향후 계획	- Canakkale Bridge('22년 완공 예정) 실시설계 예정 -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 활용, 터키 내 인프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참여 확대 추진 중		

□ 과제 및 진출 전략

- 현지 대형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서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발주처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이 중요
 -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직접 참여 가능
 -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 현지 중소형 프로젝트 참가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경험 획득 후 대형 프로젝트 참가 필요
-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현지 네트워킹이 부족한 업체들의 경우,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협업(컨소시엄 구성, Sub-contractor)을 통한 경험 확보 후 단독 프로젝트 수행 가능

2 엔지니어링(에너지)

□ 시장 현황

- 터키 정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속 육성 중
 - '23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100억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풍력(220억불, ~20GW), 수력(170억불, ~34GW), 태양광(70억불, ~5GW) 등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예정
 - * 터키의 에너지 자원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20%, 약 400억불 수준
 - 터키 정부는 2016년부터 10년간 20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발주 계획 중
 - * 풍력, 태양광 각 1,000MW 발주완료('17년), 태양광, 해상풍력 각 1,000MW 발주예정('18년 중)

〈 터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

신재생에너지	2015년 7월		2023년	
	용량(MW)	비중(%)	용량(MW)	비중(%)
수력	7,204	10.0	34,000	N/A
바이오매스	316	0.4	1,000	N/A
풍력	4,032	5.6	20,000	N/A
태양광	142	0.2	5,000	N/A
지열	438	0.6	1,000	N/A
신재생 합계	12,132	16.9	최소 36,000	최소 30%
전력생산 총계	71,908	100.0	120,000	100%

* 출처 : 터키 에너지수자원부(2015)

- 한편, 터키 정부는 '02년 이후 발전 산업 민영화 지속 추진 중
 - '15년 기준 민자 발전회사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59%를 점유 중으로 BOT, BOO, TOR 등 발전프로젝트 발전량 포함 시 민자 발전회사가 전체 발전량의 약 72% 점유 중

- 최근에는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소형 플랜트 위주 민영화를 추진 중으로 잔여 FIT*를 보유한 소규모 풍력, 수력 플랜트가 시장에서 거래 중

* 정부가 발전 생산원가에 보조금을 지급,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

□ 경쟁 현황

-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1GW급 이상 대형 프로젝트 발주 확대 추세에 따라, E.ON(독일), Enel(이탈리아), AES(미국)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대형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현지진출 타진 중
- '17년 발주된 1,000MW급 태양광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화큐셀(부품 제조업체), 터키의 Kalyon Enerji(EPC, O&M 업체*) 컨소시엄이 수주
 - *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의 약자로 계약사가 설계 및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일괄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
 - * O&M : Operation & Management, 발전소 운전 및 정비 업무
-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는 터키 기업에서 기존 시설 인수 또는 신규 건설 중으로, 주요 업체로는 Kalyon Enerji, BFP Enerji(이탈리아 BFP-터키 RENES 간 합작업체), Zorlu O&M(터키 대기업 계열사), Halk Enerji(태양광 분야 EPC 업체) 등

□ 관련 국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

- (Feed In Tariff, FIT) 터키정부는 '10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FIT (고정가격매입제도) 규정을 통해, 10년(2010~20년) 동안의 신규 신재생 플랜트 대상 FIT를 규정
- FIT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터키의 FIT 가격은 수력·풍력발전(0.073\$/kWh), 지열발전(0.105\$/kWh), 바이오매스·태양광발전(0.133\$/kWh) 등
- '20년 12월 31일 이후 발전 예정인 신규 발전 프로젝트는 FIT

경매방식 입찰(낮은 FIT 가격을 제안하는 입찰자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식)을 통해 FIT 지정 예정

- (Local Contents) 신재생에너지 부품별 국산제품을 55% 이상 사용 시 '해당부품 추가 FIT 할당량 * 국산부품 사용률' 만큼의 추가 FIT 지원
- (수입규제) Local Contents 규정 외에도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품 대상 수입감시세 등을 활용하여 수입 규제 중
 - * 태양광 패널 수입규제 예시 : 수입감시세(\$35/kg), 중국산 반덤핑 관세(\$20~25/m²)

□ 유망 사유

- 터키 정부의 전력 민영화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
- 우리 기업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터키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O&M 분야 참가 가능
 - 소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인수, 신규 플랜트 건설, O&M 파트너 참여 등의 분야가 유망

□ 진출 기업 사례

기업명	한화큐셀		
제공 서비스	태양광 모듈 제조/판매	진출연도	2014
연매출액(달러)	미공개		
터키 진출 경험 및 애로사항	- 터키 내 태양광 모듈 수요 확대에 대응해 '14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터키 내 태양광 모듈 수입규제, Local Contents 규정 등으로 물품 판매 애로 경험 - 이에 대응, 터키 내 신재생에너지 EPC업체인 Kalyon Enerji와 협업해 '17년 진행된 1,000MW급(약 13억불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향후 계획	- 해당 프로젝트의 Local Project 규정 충족을 위해 현지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연 500MW 생산)을 건립 중으로, '18년말 공장 완공 후 '19년부터 태양광 모듈 생산 예정 - 생산된 태양광 모듈은 터키 내 1,000MW급 태양광 플랜트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은 중동, 유럽 대상 생산 거점으로 활용 예정		

□ 과제 및 진출 전략

- 소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인수 시 연간 발전량, FIT 계약액 및 잔여기간 등의 정보 입수를 통해 수익성 분석 필요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BOT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의 신뢰할만한 대형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현지 수입규제 및 Local Contents 규정 숙지 필요

3 | 한류 문화컨텐츠 배급

□ 시장 현황

- '03년 한국드라마 '올인' 방영 이후, 한류 팬이 증가하는 추세로 터키 내 한류 팬 숫자는 약 17만 명('14년 기준) 이상으로 추정
 - 터키 내 한류 웹사이트는 Korea Fans(회원 수 7만 명 이상) 등 20여 개가 운영 중이며, 일부 한류 웹사이트는 불법적으로 사이트 내 한국 컨텐츠 게시 및 배급 중
- 터키 내 인터넷 보급 확산에 따라 Netflix, Blu-TV 등 유료 컨텐츠 배급 플랫폼 운영 확대 중
 - '16년 이후 빠르게 성장 중인 유료 컨텐츠 배급 플랫폼은 도시거주 청년층 위주로 구독자 증가 추세
- 한편, 터키 정부는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어서 향후 유료 컨텐츠 배급 플랫폼 시장 확대 예상
 - 터키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특별법원 구성, 단속기관 구성 등의 조치 시행 중

□ 경쟁 현황

- 국내외 유료 컨텐츠 플랫폼이 성업 중이며, 한류 컨텐츠 배급 플랫폼은 불법 무료 사이트 위주 운영 중

〈 터키 내 온라인 컨텐츠 플랫폼 현황 〉

연번	업체명	웹사이트	월 구독료	컨텐츠
1	Netflix(미국)	www.netflix.com.tr	15.99TL	로컬+해외
2	Blu TV(터키)	www.blutv.com.tr	14.90TL	로컬 위주
3	Online dizi(터키)	onlinedizi.com/kore-dizileri	불법 한류 컨텐츠 배급 플랫폼	
4	Korea Turk(터키)	koreanturk.org/tur/kore-dizileri		

* 출처 :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 관련 국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

- 일부 온라인 플랫폼 대상 터키 내 온라인 시스템 미비(Paypal), 불공정 경쟁(Booking.com) 등을 이유로 운영 정지 처분 중
 - 현지에서는 플랫폼 및 결제시스템의 제3국 운영으로 터키 내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세금 미납을 동 제재의 실제 사유로 분석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여러 규제로 인해 진출 애로 발생 가능
 - 현지 사업체 설립방식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터키 국영방송심의위원회(RTUK)로부터 허가 획득 필요
 - 동 허가는 합자회사(터키인 지분이 51%를 초과하는 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만이 허가 획득 가능
- * 본래 터키 문화콘텐츠 배급업 직접 진출은 합자회사 방식만 가능했으나,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를 통해 한국인 운영 유한회사도 진출 가능

□ 유망 사유

- 터키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조치로 유료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 높음
- 터키 내 한류 팬 확대 등을 감안 시, 향후 한류 콘텐츠 전문 플랫폼의 수요 증가 예상
- 이와 더불어, 터키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 확대는 유료 플랫폼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 가능

□ 진출 기업 사례

기업명	Netflix (미국 국적)		
제공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배급	진출연도	2016
연매출액(달러)	500만 불('16)→610만 불('17)		
터키 진출 경험 및 애로사항	- Netflix는 정보통신 관련 규제로 터키 내 서비스가 불가하였으나, 수년 간의 정부 부처와의 협상을 통해 '16년부터 서비스 개시 - 초창기 유로화 기준 변동가격이 적용되어 가입자 확보에 난항을 겪었으나, 리라화 기준 고정가격 적용 후 가입자 수 확대 성공 - 또한, 터키 소비자의 로컬 콘텐츠 선호 경향을 감안, 로컬 콘텐츠 자체 제작 및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 추진 중		
향후 계획	- 로컬 콘텐츠 자체 제작 및 제작사 제휴 확대 - TV 등 기기 제조사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터키 내 가입자 확대 추진		

□ 과제 및 진출 전략

- 터키 내 한류 문화콘텐츠 배급업은 직접(현지 사업체 설립) 또는 간접(한국 내 사이트 개설 후 현지 서비스 제공) 진출을 통해 가능
- 최근 터키 내 전자상거래 사이트 제재 동향 감안 시, 간접 진출 방식은 세금 등의 문제로 제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접 진출 방식 추천

4 폐수처리 시설 건설 기술지원 및 관리 감독

□ 시장 현황

- 터키 정부는 EU의 폐수처리 규정 충족을 위해 '23년까지 105억불을 투입해 터키 내 폐수처리 시설 개선 예정 (출처 : EU)
 - 기존 653개('15년 기준) 폐수처리 시설을 '23년까지 2,154개로 확충 추진
 - 소요예산은 중앙정부(70억불), 지방정부(10억불), EU기금(25억불) 등을 통해 조달 예정
- 유럽연합은 EU기금(EU IPA FUND) 25억불 지원을 통해 터키 내 신규 폐수처리 시설 건설을 지원 중이며, 지원금 중 일부는 기술지원 및 관리 감독 프로젝트 등에도 활용 중

〈 터키 내 폐수처리 시설 기술지원/관리 감독 프로젝트 현황 〉

연번	프로젝트명	소요금액(만€)	입찰일	과업기간
1	Carsamba 폐수처리시설 기술지원/관리 감독	145	2018.9월	40개월
2	Giresun 폐수처리시설 기술지원/관리 감독	221	2018.9월	55개월
3	Mardin 폐수처리시설 기술지원/관리 감독	325	2015.2월	38개월
4	Diyarbakir 폐수처리시설 기술지원/관리 감독	375	2011.2월	45개월

* 출처 : Turkishtenders.com

□ 경쟁 현황

- 터키 내 주요 폐수처리 시설은 지방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으로, 국내외 일부 기업이 폐수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 및 기술지원 중

〈 터키 내 주요 폐수처리 관련 업체 〉

연번	업체명	국적	주요 활동
1	Arbiogaz	터키	터키 내 50여 개 폐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경험 보유 중
2	Veolia	프랑스	Alanya 지방 폐수처리 시설(28,976m3/일) 건설 및 운영 중
3	MASS Aritma	터키	터키 내 30여 개 폐수처리 시설 건설 및 운영 중이며, 인근 불가리아, 러시아 등 진출
4	ENOR Paques	터키	터키국적 업체로, 네덜란드 Paques社와 기술협약을 통해 현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중

* 출처 : Turkishtenders.com

□ 관련 국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

- 유럽연합은 해당 프로젝트 입찰 기업을 유럽연합 및 터키 내 설립된 기업으로 한정하여 입찰 시행 중
 - 해당 프로젝트 수주 기업은 유사업종 업체 대상 프로젝트 재하청 (Sub-Contract) 가능
 - 프로젝트 진행 전반은 터키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영어를 통해 진행토록 규정되나, 세부 공고 확인, 입찰서류 준비, 실제 인력 운영 등을 위해서는 현지어 사용이 필수적

□ 유망 사유

- 국내 기업의 우수한 폐수처리 기술을 활용, 터키 내 폐수처리 시설 건설 및 정책 수립 지원 가능
 - 동 프로젝트는 터키 내 지자체 대상 폐수처리 기술 교육을 포함
 - 프로젝트 참가를 통해 향후 터키 내 폐수처리 관련 정책 설립 지원, EU기금 프로젝트 추가 참여 등 기회 모색 가능

□ 진출 기업 사례

기업명	ENOR PARQUE (터키, 네덜란드)		
제공 서비스	수처리서비스 등	진출연도	1986
연매출액(달러)	미공개		
터키 진출 경험 및 애로사항	- ENOR社は '86년 전력 패널회사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09년부터 네덜란드 PARQUE社와 기술협약을 통해 터키 내 폐수처리 솔루션 제공 중 - ENOR社の 현지 네트워킹과 PARQUE社の 기술력 간 결합을 통해 산업용 폐수처리시설 20여 곳에 폐수처리 솔루션 제공 중		
향후 계획	- 양사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터키 및 중동 일대 폐수처리 솔루션 제공 예정		

□ 과제 및 진출 전략

- 터키 내 EU기금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EU 국가 또는 터키 내 사업체 설립 필수
 - EU 국가 내 사업장 보유 업체는 기존에 설립된 회사를 활용하여 참여 가능
 - 신규 진출 희망기업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초기 리스크 절감 가능

Ⅲ

시사점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를 통해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배가되고 보다 수준 높은 FTA로 격상
 -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FTA로,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 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 중
 - * '17년 기준 한-터키 FTA 수출활용률은 71.9%로 평균 수출활용률 66.8%보다 높음
 -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로 기발효된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이 배가되어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한-EU FTA와 유사하게 대졸연수생을 인력이동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인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의한 우리기업의 진출 애로 존재
 - 특정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터키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터키 시민권 필요
 - *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 약을 생산하는 공장의 책임이사, 관광가이드, 개인병원의 책임이사, 신문사의 이사, 치과의사, 공증인, 변호사, 회계사 등
 - 외국 기술자와 건축가는 터키 기술자 및 건축가 협회 연합 산하의 관련 전문직 협회의 임시 회원이 된 후에만 터키에서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제공 가능
 - 터키 내 콘텐츠 배급을 위한 현지 사업체 설립을 위해서는 터키 국영방송심의위원회(RTUK)의 허가가 필요하며, 동 허가는 터키인 지분이 51% 이상인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획득 가능

- 또한, 터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 확보 및 유사 업무 수행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규 진출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 따라서 추후 한-터키 정부간 소통 증대 및 현지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터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 증대
 - 전문직 서비스 제공 관련, 한-터키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필요
 - * 각국의 인정기관 간에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증서에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제도
 - 컨소시엄 구성, Sub-Contract 등 현지기업과의 협업 및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시장진출로 사업 수행 경험 습득 및 규제 회피 가능

□ 고용 관련 체크포인트

- 터키 노동법 내 외국인 1명 채용시 현지인 5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속칭 '1:5 규정'이 현지 진출기업의 운영상 애로로 작용 중
 - 터키 정부는 외국계 진출기업을 위해 정부 입찰 참여기업 대상 동 규정 면제, 외국인 전문가 동 규정 적용 제외 등 다수의 면제 조항을 운영 중
 - 따라서 소규모 진출 희망기업은 사전에 동 조항을 확인하여 현지인 의무고용 최소화 필요

□ 거주증 및 노동허가 발급 관련 체크포인트

-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유입 확대에 따라 현지 거주증 및 노동허가 발급 지연 중
 - * 터키 내에서 절차 진행시 통상 5개월 이상 소요
- 주한 터키 대사관을 통해 신청 진행시 3개월 내 발급 가능하므로, 터키 내 사업계획 또는 파견계획 확정 즉시 한국 내에서 거주증 및 노동허가 발급 절차 진행을 추천

작 성 자

- | | |
|------------|-----|
| ■ 이스탄불 무역관 | 홍태화 |
| ■ 통상지원팀 | 최재영 |

Global Market Report 18-020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02-3460-3316)

I S B N | 979-11-6097-744-8
(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